메트로 2013년 2월 28일 목요일 제2680호 www.metroseoul.co.kr

세종대왕이 쓰던 '익선관' 추정… 안쪽에 훈민정음 제자해 활자본 들어있어

이상규 경북대 교수가 27일 경북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진왜란 때 왜적에게 탈취당한 왕실유물 가운데 세종대왕이 착용한 사조용이 새겨진 익선관(왕이 집무할 때 쓰던 모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원쪽)

경북대 연구팀이 공개한 이 익선관은 국내 한 콜렉터가 지난해 일본에서 구입해 들여온 것으로 훈민정음 제자해(훈민정음 제작에 대한 풀이) 활자본이 들어있다. 이 활자본이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앞선 것으로 확인될 경우 훈민정음 연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탄소연대 측정 등 과학적 검증을 거쳐야 진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김유리기자·뉴시스

세계 모바일 휩쓴 '한국 스타일'

삼성 MWC 휴대전화상 5관왕… SKT·KT 등도 수상 '코리아 잔치'

한국 IT 기업이 글로벌 모바일 시장과 기술 모두를 주도하고 있다.

국내 주요 업체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에서 주요 부문 상을 싹쓸이했다.

한국이 미래 모바일 시장까지 선도하는 지위에 올라선 것.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글로벌 모바일은 한국 스타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27일(한국시간) MWC를 주관하는 세계 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연합회가 시상하는 글로벌 모바일 어워즈에서 '최고 스마트폰' '최고 휴대전화 기업' '최고 모바일 소비자기전' '최고 모바일 장비' '최고기술책임자(CTO) 선정 모바일 기술' 등 5개 부문을 수상했다. 특정 기업이 다관왕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가운데 '최고 스마트폰'과 '최고 휴대전화 기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Ⅱ가 최고 스마트폰으로, 갤럭시 카메라가 최고 모바일 소비자가전으로 꼽혔다.

국내 대표 이동통신사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SK텔레콤은 페타 솔루션 4G LTE로 '최고 LTE 공헌상'을 받았다.

페타(PETA) 솔루션이란 ▲명품 품질 ▲탁월한 속도 ▲안정성 ▲앞선 기술 등 SK텔레콤의 망 운용 기술 특장점을 모은 것이다. 글로벌 모바일 어워즈는 이동통신업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KT는 GSMA 주관으로 진행되는 조인 이노베이션 챌린지 특별상을 거머쥐었다. 조인 이노베이션 챌린지는 이동사들이 제공하는 RCS(통합커뮤니케이션서비스) '조인'의 혁신 기능이나 연계 서비스 개발에 이바지한 개발자를 시상하는 행사다.

KT는 특화 서비스인 그룹 통화 화면 공유, 채팅 중 실시간 영상 공유 서비스를 내세워 세계 통신 사업자 중 유일하게 특별상을 받았다.

특히 이날 KT는 세계 최초로 서로 다른 종류의 LTE끼리 로밍이 가능한 서비스를 상용화해 눈길을 끌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연예계 독도지키기 봇물

3·1절을 앞두고 연예계에 독도지키기 움직임이 뜨겁게 일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독도 지킴이'로 활동해온 가수 김장훈이 제안한 '3·1절 사진 독립운동'이 SNS를 타고 연예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3·1절 사진 독립운동'은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모바일 기기 바탕화면을 독도 사진으로 바꾸는 캠페인이다. 김장훈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14장의 독도 사진을 미투데이·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다수의 SNS를 통해 전 국민에게 다단계로 사진을 전파하는 방식이다.

동료 스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60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거느린 소설가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로 홍보 대열에 앞장섰다. 이어 윤종신·컬투·윤형빈·박성광·정태호·신보라·박지선·송중근·양상국·김상민·김심호 등이 독도 사진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교체한 인증샷을 올리며 화제를 모았다. 또 MBC '무한도전' 출연진과 넌시랑 등도 이 운동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순호기자 sune@

택시 '밤 10시부터 할증' 추진

주말이도 할증제 도입

앞으로 오후 10시 이후에 택시를 타려면 20% 가량의 할증료를 물어야 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릴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할증시간 연장과 택시 요금 인상안을 포함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 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법안(일명 택시지원법)'을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논의될 택시 총량기 계획에 따르면 우선 택시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해 현재 전국 25만 대의 택시가 10년 뒤 20% 감소한 20만 대로 수급 조절된다.

국토부는 또 택시 기본 요금 인상을 통해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5년 뒤 택시 기본요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4100원으로 올리고 10년 뒤에는 선진 5개국 평균치인 51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이다.

아울러 요금제 다양화를 위해 주말 내내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주말 할증제 도입과 현재 자정에서 오전 4시까지로 정해진 심야 할증시간을 오후 10시께부터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순영기자 unitue@

불만 가득한 블랙박스

"제대로 안찍히고 화질도 나빠요" 114% 껑충 … 스마트폰 앱도 97% 급증

뚝배기도 패션시대 한국도자기 리빙브랜드 리한이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리빙디자인페어 2013'에서 건강한 소재와 화려한 디자인의 패션뚝배기 '데코팟(Deco Pot)'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블랙박스를 장착한 지 얼마 후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 당시 장면이 보관되지 않았다. 판매업체에 해당 영상의 복구를 요청했지만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다.

B씨의 자녀는 B씨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 터치를 하면 아이템이 생기는 것이 재미있어 게임 아이템 20만원을 결제했다. B씨는 업체에 항의하고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총 상담 건수가 81만2934건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차량용 블랙박스였다. 지난해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상담 건수는 2365건으로 전년보다 114% 급증했다. 오작동 등 품질 상담이 34.4%, 대금 상담이 13.6%를 차지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상담도 3704건으로 전년보다 96.9% 늘었다. 결제된 요금의 환급 상담이 47.8%, 미성년 자녀의 요금 결제 등 결제 시스템 관련 상담이 33.4%였다.

이 밖에 ▲[illegible] 부동산담보대출(5만4864건) ▲스마트폰(2만5265건) ▲휴대전화(2만4624건) ▲초고속 인터넷(1만6545건) ▲이동전화 서비스(1만4252건) ▲헬스장(1만3681건) ▲택배 서비스(1만660건) ▲중고차 중개 매매(1만565건) ▲인터넷 정보 이용서비스(9188건) ▲점퍼·재킷·사파리(9122건) 등에 대한 불만 상담도 많았다.

소비자가 제품 수리, 교환, 환급 등의 구제를 받도록 조치한 건수는 11만1808건으로 전년(8만6456건) 대비 25.4% 늘었다. 피해 구제 금액은 243억원으로 22.7% 증가했고, 1건당 평균 구제액은 21만7000원이었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신속한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의 소비자상담센터를 하나로 묶은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운영하고 있다"며 "상담원들이 유사 사례를 검색해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학생 절반 '시력이상'

초·중·고교생의 절반 이상이 시력에 이상이 있으며 비만과 피부·호흡기질환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758개 학교에서 8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2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좌우 한쪽이라도 맨눈 시력이 0.7 이하거나 눈에 나빠 안경을 쓴 '시력 이상' 비율은 56.0%에 달했다.

시력 이상 학생은 2002년 42.3%에서 2009년 46.2%, 2010년 47.7%로 증가한 뒤 2011년에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비만 학생 비율은 14.7%에 달했다. 학생 100명당 비만 학생은 15명에 달하는 셈이다. 3.4%의 학생은 피부 질환을 앓고 있다.

/박정훈기자 sisyphe@

산소호흡기 없는 요양병원 수두룩

응급호출벨이나 산소호흡기가 없는 등 질 낮은 요양병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937곳 요양병원에 대해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요양병원 중 65곳(6.5%)은 병상·욕실·화장실에서 응급호출벨 설치율이 100%에 미달했다. 심지어 4곳의 요양병원에서는 산소 공급 장비가 아예 설치조차 되지 않았으며 7곳은 산소 흡인기가 1대도 구비되지 않았다. 전국 요양병원 중 1등급은 112곳(11.95%)이었으며 최하위 5등급은 123곳(13.1%)이었다. /배동호기자

2010년생 남자 5명중 1명 '총각귀신'

평생 미혼 신세… 결혼해도 넷중 하나는 이혼

2010년에 태어난 남자아이 다섯 명 중 한 명은 결혼을 못 하고 '총각귀신'으로 생을 마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결혼에 성공해도 4명 중 1명은 이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최근의 혼인상태 변화자료를 생명표에 적용해 산출한 내용이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0~2010년 혼인상태생명표'에 따르면 2010년 출생아 기준으로 남자 중 79.1%는 초혼을 하고, 나머지 20.9%는 미혼 상태로 사망하며 출생한 여아 중 84.9%는 초혼을 하고 15.1%는 미혼 상태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왔다.

결혼을 하더라도 남자 25.1%, 여자 24.7%는 이혼으로 결혼생활을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남자 0.1%포인트, 여자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 이혼 시 재혼할 확률은 남자 58.1%(-12.8%), 여자 56.1%(-8.9%)이며 사별 시 재혼할 확률은 남자 3.0%(-2.7%), 여자 0.8%(0.3%)로 10년 전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한편 남녀 모두 결혼해 배우자와 같이 사는 기간은 혼자 사는 기간에 비해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미혼 기간은 남자 39.9년, 여자 36.3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과 사별 등이 제외된 수치로 전 생애 기간 동안 미혼기간의 비율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51.6%, 43.1%를 차지했다. 반면 배우자가 있는 평균유배우 기간은 남자의 경우 32.7년(42.3%), 여자의 경우 33.9년(40.4%)으로 평균 미혼 기간보다 짧았다.

또 평균 사별연령을 보면 남자 77.8세, 여자 74.2세로 2000년보다 각각 4.8세, 5.2세 높아졌다. 남자의 기대수명이 더 짧아서 여자가 배우자와 사별하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사별 때 평균 사별 기간은 남자 9.7년, 여자 15.3년이었다. 10년 전보다 남자는 0.7년 짧아졌지만 여자는 0.8년 짧아졌다. 10년간 남자의 기대수명 증가가 여자보다 컸기 때문이다.

/김지민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도 '여풍'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27일 임관된 신임 검사 50명 가운데 여성이 32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 사법연수원생들이 학군이 좋고 업무가 거친 검사직을 기피한다는 것은 옛날 얘기"라며 "여성 검사 임용 비율이 2011년 65%에 이어 지난해에도 60%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남성 조직으로 여겨진 군대에서도 여성의 활약이 돋보인다.

이날 열린 제69기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양주희(22) 생도가 전체 수석을 차지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육사 수석 졸업은 여성 생도의 차지였다.

한편 최근 발표된 학군단(ROTC) 동계 군사훈련 평가에서 성신여대가 전국 110개 ROTC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정윤희기자 unique@

통신료 카드자동이체 스톱

수수료 협상 난항 결국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카드사와 이동통신사 간 수수료율 분쟁의 불똥이 결국 소비자에게 튀었다.

다음달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통신요금의 신규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온 SK텔레콤과의 수수료율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원칙대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가맹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지난달 카드사를 통한 통신비 자동이체 접수 대행이 중지된 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신한카드를 이용한 신규 고객의 통신비 자동이체를 아예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번호이동 고객의 불편이 클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를 바꾸면 신규 고객으로 분류돼 신한카드로 통신비 자동이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신한카드 통신비 자동납부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가입자 보호 방안이나 구체적인 자동납부 중단 시기 등은 협의를 지속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로 신한카드와 재계약이 다가온 KT·LG유플러스 역시 카드 자동이체 금지에 동참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삼성카드 등 다른 카드사에도 조만간 신한카드와 동일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이 통신요금 납부 방식을 일제히 바꿔야 하는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서승범기자 ksb@

세종시 땅값 21.5% 상승

전국의 표준지 땅값이 2.7% 올랐다. 4년 연속 상승이다. 정부청사가 옮겨간 세종시의 공시지가가 21.5% 상승해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반면 과천은 0.38% 하락해 희비가 엇갈렸다.

한편 전국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소재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리퍼블릭'의 부속 토지로 지난해보다 7.7% 상승한 ㎡당 7000만원(3.3㎡당 2억3140만원)이었다.

/김지성기자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7개월만에 축소

병원규모 따라 진료과목 조정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가 시행 7개월 만에 축소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응급실 당직 전문의를 두는 진료과목 수를 2~8개까지 각각 달리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는 응급실에 모든 진료과목당 1명의 전문의를 두도록 했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전문의 인력 확보가 어렵고, 병리과·영상의학과 등 진료 요청이 없는 과목에도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114곳)는 내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외과·마취통증의학과 필수 진료과목 5개의 당직 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며, 규모가 작은 지역응급의료기관(302곳)은 내과·외과계열에서 각 1명씩 전문의가 남아야 한다.

권역 전문응급센터(23곳)는 5개 필수 진료과목 외에 정형외과·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응급질환 진료과목의 당직 전문의를 둬야 한다.

/배동호기자

팔짝팔짝 봄이 왔다 부산지역 낮 최고기온이 17도를 기록하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27일,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학생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27회> 그림 박상철

마이클 잭슨 '팝의 황제' 등극

1984년 2월 28일 미국 LA의 시라인 오라토리움에서 열린 제 26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마이클 잭슨이 올해의 앨범과 올해의 레코드 등 무려 8개의 그래미 트로피를 거머쥐며 '팝의 황제' 자리에 등극했다. 이것은 1년여 전인 1982년 12월 발매됐던 전설적인 앨범 '스릴러(Thriller)'가 미국 내에서만 2200만 장이라는 놀라운 판매고를 기록했고 빌보드 앨범차트에서 무려 37주간 1위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작성했으며, 싱글차트 1위에 올랐던 '빌리진(Billie Jean)' '비트잇(Beat it)'을 포함해 싱글로 커트된 7곡이 모두 톱10에 진입하는 신기원을 이룬 후여서 예견된 일이었다.

7만명 웃게한 공무원…16억 아낀 경찰

제5회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하는 이성보 위원장 이성보 (왼쪽)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의 날'을 기념해 열린 제5회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에게 시상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출범 5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

원전비리 제보 시민·검거 수사관 등 101명 수상

태종 신문고 설치한 2월27일 '국민권익의 날'로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단체와 개인 등의 노력을 치하하는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또 이날을 '국민권익의 날'로 제정하는 기념식도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7일 서울 중구 대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해 선정된 13개 단체와 101명 개인에게 정부 포상과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민원 업무 부패 방지 검찰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방 공무원과 검사·일반 시민 등에 고루 분포됐다.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한왕수(58) 전북 정읍시청 도시과장은 호남고속철도(KTX) 정읍역사 신축과 관련한 주민 7만3000여 명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 과장의 중재로 6개월 이상 중단된 공사가 재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박현(44) 경위는 부패 방지 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박 경위는 국고 16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해운사 대표 등 28명을 검거해 국가 재정 손실을 막은 공이 높이 평가됐다.

2011년 8월 원자력발전소 자재 납품 비리를 고발한 시민과 담당 수사관도 나란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씨는 우연히 한 남성이 거액의 현금을 음료수 박스에 포장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울산지방검찰청에 제보했다. 계보를 받은 김원진 울산지검 특수부 수사관은 현금 포장자의 연락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끈질긴 추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자재 납품 관련 비리임을 밝혀냈다.

이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21명을 포함한 30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수사하는 성과를 냈다. 권익위는 A씨와 김 수사관에게 각각 국민권익위원장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2월 27일은 조선시대 태종이 억울한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라며 "매년 이날을 '국민권익의 날'로 제정하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008년 국민권익 구제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3개 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연 125만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며 권익구제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장윤희기자

내달 돌아오는 안철수 10월 전 신당 창당

4월 재·보선도 후보 낼 듯

안철수(사진)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신당 창당을 위해 이르면 다음달 초 귀국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27일 한 언론은 안 전 후보 캠프 출신 관계자 인용해 "안 전 후보가 이르면 다음주 중 귀국해 10월 재·보선 전 창당을 목표로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야 일서 4월 24일 재·보선 때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 등에 후보를 내 창당 기초 작업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안 전 후보는 기존 정당과 경쟁하기 위해 조직 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창당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안 전 후보 측 인사들도 만남이 잦아져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은 4월 재·보선에 출마할 후보군을 꾸리는 등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병에는 안 전 후보 캠프 출신의 금태섭·정연순 변호사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용재기자

"어렵지만 민생 챙기자"

박 대통령 첫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서민물가 안정 노력 당부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생을 포함한 국정 현안을 잘 챙겨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이날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이 시기에 꼭 챙겨야 할 정책 사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조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 표류로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데 따른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국민들 안심시키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이날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 인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 당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상 요인에 누적됐던 가공식품 가격과 공공요금 등이 한꺼번에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매주 한 차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현안을 챙길 예정이라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박 대통령의 서민 물가 안정 대책 지시에 따라 28일 긴급 차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워 차관 주재로 물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김용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친노 책임지고 물러나라"
민주당 대선평가위 촉구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가 26일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 공동으로 자숙하고 퇴진할 때 과거 극복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며 사실상 친노(친노무현)와 주류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상진 민주당 대선평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선평가 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민주당 대선 패배는 오만과 편견, 국민이 원하는 정권 재창출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우는 도덕적 해이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편집인	[illegible]
사장·편집인	[illegible]
편집국장	[illegible]
광고국장 직대	[illegible]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8-2100
독자센터	(02)721-9862

[illegible]

연금복권520 제87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1조	776555
			8조	213257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550222
4등	100만원		각조	40552
5등	2만원		각조	522
6등	2000원		각조	36, 76
7등	1000원		각조	4, 2

민주 강운태 "찰밥이든 흰밥이든 짓게 해주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정부조직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개편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마지막 타협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대치가 더욱 장기화될 경우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여야 내부에서도 결단과 양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도부가 야당뿐 아니라 대통령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민주통합당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식당 주인이 밥을 짓겠다는데 찰밥이든 흰밥이든 짓게 하자"며 "표결을 해서라도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해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용재기자

바위산의 카샤파왕 [스리랑카 시기리야]
어디에도
없던 곳
인도양으로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KOSPI

2/21	2/22	2/25	2/26	2/27
2015.22	2018.89	2009.52	2000.01	2004.04 (+4.08)

KOSDAQ

2/21	2/22	2/25	2/26	2/27
524.44	528.38	527.27	528.56	533.36 (+4.80)

지수	종가
Nikkei (일본)	11253.97(-144.84)
Hang Seng (홍콩)	22577.01(+57.32)
Shanghai (중국)	2313.22(+19.88)
Dow Jones (미국)	13900.13(+115.96)

EXCHANGE RATE

통화	환율
달러	1084.40
엔(100)	1181.09
유로	1415.70
위안	174.06

꽃피는 증시 "2000 뚫고 상승"

3월 코스피 전망…전문가들 "단기조정 후 반등"

3월 코스피가 2000선에 가로막혔던 박스권에서 벗어나 215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27일 증시 전문가들은 박근혜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과 중국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 기조, 환율 안정 등의 호재에 힘입어 코스피가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3월 초까지는 정국 혼란을 야기한 이탈리아 총선 결과와 다음달 1일 발동되는 미국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 우려 등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각 증권사별 3월 코스피 예상 변동폭을 보면, 키움증권(1900~2150선), KTB투자증권(1950~2100선), NH농협(1925~2100선), 하나대투증권(1940~2080선), 대신증권(1960~2060선), 유진투자증권(1940~2060선) 등이다.

곽병열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하반기 추경예산이 12조원 수준으로 나타나면 의미 있는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며 "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차기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가시화되면 주가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엔저 현상이 잠시 진정되면서 3월 코스피는 2월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초에서 월말로 넘어가는 시점에 투자 종목을 갈아타라는 조언도 나왔다.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베노믹스를 적극 지지하는) 일본은행 총재 내정, 이탈리아 총선, 미국 시퀘스터 사용 등 이달 말의 굵직한 이벤트로 인해 다음달 초까지 주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 연구원은 "IT, 금융, 화학, 철강을 월간 주도 업종으로 설정하고 3월 말에는 방어적 성격인 내수·서비스 업종으로 바꾸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주총데이는 3월 22일

한편 다음달 22일에는 올해 중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가장 많이 집중 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정기주총 개최 관련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시한 257개 상장법인 가운데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111개사(43.2%)가 이날 주총을 연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이마트 맘키즈클럽 "아기모델 뽑아요" 이마트는 맘키즈클럽 7주년을 맞아 36개월 미만 아기를 대상으로 쿠폰북 표지모델을 뽑는다. 27일 성수점 문화센터에서 아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더 빨라진다
MS '익스플로러 10' 공개

마이크로소프트(MS)가 20%가량 구동 속도가 빨라진 윈도7 운영체제(OS)용 '인터넷 익스플로러(IE) 10'을 27일 공개했다.

IE 10은 속도, 접근성, 호환성,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보안 문제 등 이전 모델보다 향상된 기능을 제공한다. 또 30개의 웹 표준을 추가했다.

IE 10은 27일부터 윈도7을 이용하는 PC 대부분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다만 윈도XP나 윈도 비스타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윈도7을 사용하는 PC 사용자는 전 세계 6억7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귀영기자 lunlee@

헤드폰 신모델 'K619' 눈길

AKG JBL공식 수입원 테크데이타(www.techdata.co.kr)가 신규 모델인 'K619'를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리는 '2013 서울 국제 오디오쇼'에서 선보인다.

테크데이타는 이번 전시회에서 K619를 비롯해 K551, K374 등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청음 행사는 물론 AKG K309 이어폰을 선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비웃는 외국계 은행

대출중개수수료 인상해 대출금리 인하에 '찬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인하 방침과는 반대로 대출중개수수료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면서 대출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 당국이 머쓱해졌다. 대출중개수수료는 금융회사가 대출자를 소개한 중개업체 또는 중개인에게 주는 수수료로, 대출금리에 영향을 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 당국의 정책에 맞춰 대출중개수수료를 낮췄다. 하지만 외국계 은행들은 수수료를 되레 올렸다.

국민·우리·신한·농협·외환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중개수수료는 지난해 3분기 0.84%에서 4분기 0.79%로 0.0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SC은행의 신용대출중개수수료는 지난해 3분기 2.29%에서 4분기 2.42%로 0.13%포인트 높아졌다. 씨티은행의 신용대출중개수수료도 같은 기간 1.72%에서 1.77%로 0.0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4분기 담보대출중개수수료도 SC은행이 0.41%, 씨티은행이 0.36%로 5개 시중은행의 평균(0.26%)을 훌쩍 웃돌았다.

/김지성기자 lazyhand@

쌍용건설 부도 모면 내달 4일 '워크아웃'

쌍용건설이 채권단의 긴급자금 지원 결정에 간신히 부도 위기를 넘겼다. 쌍용건설이 전날 신청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은 이르면 다음달 4일 개시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쌍용건설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을 포함해 산업·신한·하나·국민 등 5개 채권은행은 전날 금감원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쌍용건설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채권은행들은 국내 시공 순위 13위의 큰 건설사인 쌍용건설의 부도가 미칠 파급력과 향후 국외 사업의 잠재력 등을 고려해 자금 지원에 나섰다.

채권단이 부도를 막아준 셈이므로 오는 3월 4일 열리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되는 워크아웃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5개 채권은행이 쌍용건설 여신 1조59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2% 수준이다.

채권은행들은 대주주 지위에 있던 자산관리공사(캠코) 역시 쌍용건설 회생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의 주식은 상장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 4월 경순증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고 출자전환, 감자로 상장폐지 요건이 사라지면 6월 있종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김형민기자

doota!

♥ to ♥ FESTIVAL

두타 새 봄맞이
2.28 ▶ 3.10

겨울시즌 굿바이 세일

봄신상품 특가전

신학기 기획상품전

사은행사

당일 구매고객에게 사은품을 드립니다 (1인 1회 비연속식 증정)

일 시 2.28(목)~3.10(일)
14:00~22:00 (단, 월요일은 휴무)

장 소 B1 플리스존 앞 사은행사장 (Tax Refund)

사은품 **부츠커퍼** (일 선착순 1,000명)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티셔츠 (일 선착순 300명)

EVENT

MBC every1
TOP DESIGNER 프로그램 EVENT
탑디자이너

1. 시청자 인기투표 TOP4 팬미팅

일 시 3.9(토) 15:00, 17:00 (2회)

장 소 B1 두체존

참가디자이너 이은천, 원지연, 나홍상, 이보형

2. 참가 디자이너 티셔츠 증정

쿠폰받기 ▶

facebook.

신차 42종 몰려온다

서울모터쇼 내달 28일 개막…'월드 프리미어' 무려 9종

다음달 2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9회 2013 서울모터쇼'가 월드 프리미어 9종을 선보인다.

월드 프리미어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모델을 일반에 소개하는 것으로 모터쇼의 자존심이자 위상이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위원장 권영수)는 27일 올해 모터쇼 준비 현황과 참여 업체를 소개했다.

4월 7일까지 11일간 '자연을 품다, 인간을 담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참여 업체 중 228개사는 국내 업체이며 103개사는 해외 업체다. 해외 업체 중에는 독일이 5개 완성차 업체를 포함해 35개사로 가장 많다.

전체 참여 업체 가운데 완성차 업체는 29개사(국내 9개사, 해외 20개사), 부품·용품 업체가 290개사, 이륜차 업체가 4개사다. 한국타이어를 비롯한 국내 타이어 업체는 참여하지 않는다.

신차는 42종으로 지난 모터쇼의 54종보다 감소했지만 토종 브랜드가 공개하는 월드 프리미어는 9종으로 해외 모터쇼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다.

현대차의 럭셔리 스포츠 쿠페 콘셉트카 HND-9과 상용차인 트라고 엑시언트, 쌍용차의 콘셉트카 LIV1과 W 서미트, 어울림모터스 뉴 스피라 GT 3.8, 파워프라자 콘셉트카 예쁘자나 4.0 등이다.

아시아 프리미어 차량도 기아차 K3 5도어, 르노삼성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캡처, 쌍용차 콘셉트카 SIV1, BMW 3시리즈 GT·M6, 그란쿠페·Z4 s드라이브35is, 링컨 올 뉴 MKZ, 도요타 아발론, 폭스바겐 골프 A7 등 15종이 있다.

기아차 카렌스 후속 RP, 이번에 처음 참가하는 마세라티의 더 올 뉴 콰트로포르테 등 한국에서 처음 공개되는 차량은 18종이다. /배동호기자 zero@metroseoul.co.kr

'강북의 판교' 삼송으로 이사갈래!

신세계 4000억대 쇼핑몰 호재에 동원로얄듀크 전세·분양 매력적

최근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가 주목받고 있다.

전세대란 탈출과 내 집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송지구는 수도권에서 수원시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신세계그룹이 4000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대형 복합쇼핑몰을 건립하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입지 조건도 훌륭하다. 서울 은평뉴타운과 마주하고 있고 지축·원흥지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판교신도시를 능가하는 주거 타운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특히 지하철 3호선 삼송역 주변에 위치한 동원로얄듀크는 계약취소분 등 잔여 세대에 대해 소비자 중심 보증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세와 분양을 동시에 진행 중인 데다 전세는 보증금이 32평형 1억7000만원, 40평형 1억9000만원, 42평형 2억원으로 인근 서대문·은평뉴타운에 비해 6000만~1억원 정도 저렴하다.

인근 원흥역과 GTX가 올해 착공되면 강남권까지 20분대에 진입이 가능해진다.

문의 031)711-0002 /이국명기자

위기의 중년 지켜주는 '방패 보험'

차티스 '큰병 이기는 보험Ⅳ'

60세부터 64세까지로 정의되는 중년은 장수로 가기까지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이 시기에 암, 뇌졸중 같은 성인병으로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중년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가벼운 증상부터 알아둔다면 병의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현실적인 대비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최근 중년에게 발생하기 쉬운 성인병을 집중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차티스손해보험의 '큰병이기는보험Ⅳ'는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중년에 걱정되는 큰 병에 대한 다양한 보장을 필요에 따라 선택해 설계가 가능하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2000만원을 지급해 가계에 큰 부담을 덜 수 있다(암의 경우 가입 후 91일부터 적용,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은 보장 금액의 20% 지급). 또한 상해·질병 입원일당, 방사선치료비, 수술비 등 다양한 선택계약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80-6050-101) 또는 차티스 손해보험의 홈페이지(www.charti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서님기자

www.imtcast.com
때론 달콤하게 -
때론 상쾌하게 -
때론 유쾌하게 -
t나게 tv보자!
눈으로 즐기는 T-time
FX
SCREEN
FOX
DRAMA cube
FASHION N
CINE f
FOXlife
channel
t.cast
최강 컨텐츠 리딩 그룹!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 f
life
FX

1000만
관객 돌파!
감사합니다!

진짜야??

우리
천만배우야??

〈7번방의 선물〉의
기적 같은 흥행 기록!
★★★★★

2013년 첫번째 기적
7번방의 선물

절찬
상영중!

각시탈 만들고 만세 외침 서울랜드와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이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삼일절 나라사랑 태극기 축제'를 연다. 서울랜드는 다음달 1일 삼천리 동산에 나라사랑 드리아드 포토존을 설치하고, 오후 1시부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쳐 가장 높은 데시벨을 기록한 참가자에게 상품을 증정하는 '만세 이벤트'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직접 '각시탈'을 만드는 체험 행사(오후 1시30분)와 독립운동 역사 OX 퀴즈(오후 3시)도 열린다. /권보람기자

미샤 목표는 '업계 2강'

작년 매출 4500억 '브랜드숍 1위'… 2017년엔 1조 달성

2년 연속으로 브랜드숍 시장 1위를 수성한 미샤가 전체 화장품 업계 2위인 LG생활건강에 도전장을 냈다.

미샤를 운영하는 서영필(사진) 에이블씨엔씨 대표는 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브랜드숍 1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서 "2017년까지 매출 1조원을 달성하고 아모레퍼시픽에 이어 업계 2강에 안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해 4523억원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대비 37% 성장한 수치로 후발 주자인 더페이스샵의 매출액을 500억원 가까이 따돌렸다.

미샤는 이 같은 매출 상승과 브랜드숍 1위 수성은 끊임없는 제품 개발은 물론 비교 광고 와 같은 마케팅 혁신에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 나이트 리페어 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 등 밀리언셀러 제품의 영향력이 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서영필 대표는 "올해는 매출 5461억원 달성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매스티지(대중적인 명품) 브랜드로 포지셔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이바웃 캔서' 좋아요! 이대의료원 퀴북 행사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암 정보 동영상 프로그램인 '온 어바웃 캔서'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를 다음달 4일부터 12주간 진행한다.

매주 화요일마다 한 편씩 선보이는 동영상 시청 후 퀴즈의 정답을 댓글에 남기고 '좋아요'와 함께 해당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면 된다.

매주 25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카페라떼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매월 1명을 뽑아 '아이패드 미니(16GB)'를 선물한다.

카페라떼 당첨자는 매주 월요일, 아이패드 미니 당첨자는 매월 마지막 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고객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 암에 대한 정보를 얻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보람기자

'싸이 화장품' 20만개 돌파

화장품 시장에서도 싸이 효과가 입증됐다.

소망화장품은 최근 가수 싸이와 협업해 만든 남성용 브랜드 '꽃을 든남자 에너지 팩토리'가 제품 출시 한 달 만에 2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특히 '맨즈 밤'은 스킨케어, 메이크업, 자외선차단까지 동시에 관리해주는 올인원 타입으로 20대 외에 중장년층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꽃을든남자 에너지 팩토리는 제품 기획부터 브랜드 라인 이름까지 개발 전 과정에 싸이가 직접 참여했다.

베니스 옮고 갈 가면축제' 롯데월드가 3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봄을 유혹하는 마스크 페스티벌 등 개최한다. 베니스 가면 축제의 화려함을 그대로 옮긴 '판타지 마스크 카라반'을 비롯해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캐릭터들이 펼치는 '앤스파티 틴 잔 앨리스' 뮤지컬 쇼, 미스터 마스크 퍼레이드 밴드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준비했다.

상명대 '포토 아카데미' 내달 4일까지 수강접수

상명대학교 상명포토 아카데미가 다음달 4일까지 사진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진조 중 고급과정 외에 야생화, 풍경, 여행 사진과 같은 특수 촬영 강좌와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는 창작 워크숍 강좌도 개설됐다. 야생화 워크숍 강좌는 송기엽(사진) 교수가 강의한다. 문의 photoart.smu.ac.kr·02)2075-2187

무인양품 할인에 무료배송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무인양품(MUJI)에 다음달 11일까지 '신생활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두 사람의 생활을 테마로 노트·필기류, 파자마 세트를 5% 할인하고 침대·소파류 구매 시 배개 이불·커버 5% 할인을 적용해준다.

또한 파손될 수 있는 상품을 제외하고 5만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로 배송해준다.

문의 www.mujikorea.net

백수오퀸 롯데홈쇼핑 방송

헬스케어 기업 내추럴엔도텍이 오늘(28일) 롯데홈쇼핑 최유라쇼에서 여성 맞춤 건강기능식품 '백수오퀸' 론칭 방송을 진행한다.

오후 8시35분부터 60분간 4박스(22ex28포·16주분) 구성으로 단독 판매한다.

백수오퀸은 이엽우피소와 유사한 천연 생약재 백수오에 속단, 당귀의 혼합 추출물을 첨가해 40~70대 갱년기 여성의 안면홍조, 피로감, 근관절통 증상 개선을 돕는다.

Welcome to Fukushima

스키, 골프, 온천, 먹거리... 매력 넘치는 후쿠시마

오우치주쿠

스파 리조트 하와이안즈

츠루가조 성

맑은 공기 속에서 최상급의 눈을 즐길 수 있는 매혹적인 후쿠시마 현의 스키장!

대자연의 풍부함 속에 다이나믹하게 펼쳐진 골프장!

계절의 아름다움과 일본의 전통을 여유롭게 느낄 수 있는 130여 곳의 온천!

후쿠시마 현의 독특하고 특별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향토요리!

그 외에도 다채로운 매력이 넘치는 후쿠시마 현에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특별한 봄을 만나보세요!

온천

니혼슈

온천(노천탕)

고시키누마

키타카타 라멘

후쿠시마 공항

전세기 직항편으로

약 2시간

인천국제공항

ASIANA AIRLINES

福島

후쿠시마

star bag

'직장의 신' 김혜수와 호흡

이희준이 정유미·전혜빈·조권 등과 함께 KBS2 새 월화극 '직장의신'에 합류했다.

김혜수·오지호가 남녀 주인공을 맡은 이 드라마는 부장님도 벌벌떠는 슈퍼 갑 계약직 미스 김(김혜수)과 그녀를 둘러싼 직장인들의 일과 사랑을 유쾌하고 발랄하게 그려낼 로맨틱 코미디물이다. 이희준은 정규직(오지호)의 입사 동기이자 친구인 무정한 역에 낙점됐다.

'그겨울' OST '눈꽃' 음원 1위

가수 거미가 SBS 수목극 '그 겨울, 바람이 분다' OST '눈꽃'으로 음원차트 1위를 차지했다.

드라마에서 조인성과 송혜교가 승사랑 키스를 하는 장면에 흘러나온 곡으로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27일 음원 공개와 동시에 각종 차트 정상에 올랐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거미는 다음달 3일 SBS '인기가요'에 출연해 '눈꽃' 라이브 무대를 처음 선보인다.

SBS 통해 지상파 복귀설

배우 김성민이 지상파 복귀를 준비 중이다.

그는 7월 방영될 SBS 새 주말극 '결혼의 여신'의 남자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캐스팅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유력한 상황으로, 결정되면 KBS1 '웜기' 이후 3년 만의 지상파 복귀다.

사극 '천명'서 부성애 연기

배우 이동욱이 4월 방송될 KBS2 새 수목극 '천명'으로 사극에 도전한다.

그는 내의원 의관이었으나 살인 누명을 쓰고 도망자가 되고, 불치병에 걸린 딸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최원 역을 맡았다. '난폭한 로맨스' 이후 1년 2개월 만에 드라마에 복귀하는 이동욱은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해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깨금이와 이별 싫어 막방 안봤죠

tvN 월화극 '이웃집 꽃미남'을 마친 배우 윤시윤(27)과의 첫 대화는 '깨발랄'한 자문자답으로 시작됐다. "저~ 종영 소감 말하겠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깨금이의 세계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는 아직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어른의 깊은 생각을 가진 깨금이(엔리케 금) 의 모습 그대로였다.

#요즘 관심 끄는 분야는 '예능'

좋아하는 친구를 닮아 가듯 캐릭터와 한몸이 되는 연기 스타일 때문에 지금껏 출연한 모든 작품에 마지막 회를 보지 않았다. '끝나버렸다'는 느낌이 싫어서다.

종영일인 26일 전 출연진과 함께 뒤풀이 MT를 가면서 "눈꺼풀에 이쑤시개를 끼워서라도 마지막 회를 보게 만들겠다"며 으름장을 놨지만 탈출(?)에 성공했다. 세상과 벽을 쌓은 독미(박신혜)가 깨금이를 만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 자체로 만족한다. 그에게 '이웃집 꽃미남' 16화는 지금껏 '재미'커플과 울고 웃어준 시청자들을 위한 기념 선물인 셈이다.

정들었던 깨금이와의 이별에 충분한 시간으로 2개월을 잡았다. 이전 작품을 보내기 위해 했던 8~10개월보다는 부쩍 짧아진 기간이다. 그동안 고사했던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고려 중이다.

"'제빵왕 김탁구'로 시청률 50%라는 과분한 사랑을 받다보니 데뷔 초에는 자만하게 될까 두려워 예능을 자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연예인 윤시윤'으로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이 조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애를 하더라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이쁜 사랑을 하는 거죠. '나도 윤시윤처럼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요. 진솔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꿈' 갖게 해주고파"

그를 보면 반듯한 청년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시청률보다 '힐링'을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배우로서의 작품관은 물론이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휴대전화에 저장된 좋은 글귀와 자기반성으로 여닫는 자연인 윤시윤의 건실함이 만든 결과다.

동료들이 붙인 '활자 중독증'을 폭로하면서 '공부왕'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개인 책장에 꽂혀 지만 해도 2000권 가까이 된다. "독서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뛰어난 취미활동"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한 권에 1000~2000원 하는 헌책으로 인생이 바뀔 만큼 큰 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에 이동하면서 읽은 책 '로마인 이야기'에서도 삶의 지혜를 한 가지 배웠다.

"적을 방어할 높은 산도, 교역을 발전시킬 바다도 없던 로마가 강대국이 된 이유는 스스로 위기를 알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저 역시 가진 재능이 부족하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위태로움을 안고 노력한다면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모은 책은 현재 꾸준히 봉사활동하고 있는 한 학교에 기증해 독서토론교실을 만들 예정이다. 친한 후배들과 함께 방과 후 연극활동 등 성취감을 줄 수 있는 동아리도 계획 중이다. 현실에 치여 너무 빨리 어른이 되려는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훈훈한 어른이 돼있을 테니 조바심 내지 마라'는 자칭 '어린아이' 윤시윤 몫의 따뜻한 조언이다.

"지금껏 주신 사랑을 이런 식으로 조금이나마 갚아가는 것이 연예인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자신에게 엄격해지고, 무엇이든 치열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저에게 주시는 관심과 사랑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수갑인 셈이죠."

/김민정기자 kwon@metroseoul.co.kr

사진/서보형(라운드테이블)

디자인/박선영

'이웃집 꽃미남' 윤시윤

'제빵왕' 시청률 50%였지만 작품 '힐링'이 중요

책 2000권 소장한 '독서왕' 봉사활동 꾸준

'핑크빛 쏟아지는' 수영

원빈 이어 정경호와 또 열애설 · "친한 선후배일 뿐" 양측 부인

소녀시대 수영이 또 한 번 열애설로 핫 아이콘임을 입증했다.

수영은 지난해 말 톱스타 원빈과 교제설로 화제를 모은 데 이어 배우 정경호와 연인 사이라는 소문에 휩싸였다. 나머지 소녀시대 멤버들은 데뷔 이후 한 차례도 이 같은 소문에 오르지 않았는데 유독 수영만 핑크빛 기류의 중심에 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수영은 소녀시대 멤버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을 지녀 가요계 외에서도 다양한 인맥을 쌓아왔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입담을 자랑했고 최신 개그 성대모사나 모창 등으로 탁월한 예능감과 소탈한 매력을 보였듯이 대인 관계에서도 많은 이들의 호감을 얻고 있다.

7년째 연예계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수영은 SBS '한밤의 TV 연예' MC와 드라마 제3병원 출연 등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어 자연스럽게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받게 됐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스물네 살로 한창 매력이 무르익고 있어 자주 근거 없는 열애설도 불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수영은 "활력소" 정경호 발언 다시 화제

지난해 9월 군 복무를 마친 정경호는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됐던 걸그룹은 소녀시대였다. 수영이 제일 큰 활력소가 됐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영상이 '한밤의 TV 연예'에 소개되자 진행을 하던 수영은 애교로 화답하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또 한 매체는 두 사람이 올해 초부터 연인으로 발전했고 극장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이들의 소속사는 "지인들과 모이는 자리에서 알게 돼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맞지만 사귀는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손담비 미모 비법 공개

'절친' 가희와 함께 뷰티프로그램 MC 맡아

섹시 퀸 손담비가 뷰티 프로그램 MC를 맡아 미모 비법을 공개한다.

그는 음악 채널 MBC뮤직이 다음달 14일 첫 방송하는 '손담비의 뷰티풀 데이즈'의 진행을 맡는다.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여성 잡지의 구성 요소를 빌려 미용뿐 아니라 패션, 문화, 여가, 취미 등 유용한 정보를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으로 전달한다.

제작진은 "전문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춰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책임지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표 건강 미녀인 손담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엿볼 수 있다는 점도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담비와 함께 국내 대표 섹시 미녀인 애프터스쿨 출신의 가희가 공동 진행을 맡는다.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온 두 사람은 첫 녹화에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박진영기자 tak0427@

男心 뒤흔든 레인보우 '엉덩이 웨이브'

레인보우가 카라의 뒤를 잇는 화제의 '엉덩이 춤'을 탄생시켰다.

최근 발표한 신곡 '텔 미 텔 미'의 포인트 안무로 일곱 명의 멤버 전원이 뒤돌아선 상태로 엉덩이를 좌우로 흔든다. 위아래로 크게 웨이브하는 동작으로 구성됐다. 레인보우의 팬들은 이 포인트 안무를 '엉덩이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레인보우는 검지 손가락을 입에 댄 상태로 이 엉덩이 웨이브를 선보여 귀여우면서도 은근한 섹시한 매력을 동시에 전해 남성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텔 미 텔 미' 안무는 남자친구에게 애교 부리는 여자친구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표현했다. '엉덩이 웨이브'는 물론 손가락을 빙글빙글 돌리거나 발 검지를 치는 동작 등 사랑스러운 애교 안무들이 남성 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특히 '텔 미 텔 미'는 엉덩이 춤을 앞세워 돌풍을 일으킨 카라의 '미스터'를 압도하는 대박 히트를 기록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유순호기자

빅뱅 대성 日 19개 도시 25회 공연

빅뱅의 대성이 일본 데뷔 앨범을 발표하고 대규모 투어에 나선다.

그는 일본 총 19개 도시에서 25회 공연을 치른다. 당초 일본 첫 번째 솔로 앨범 '디스커버' 발매를 기념해 도쿄와 고베에서 각각 2회씩 단독 콘서트를 펼칠 예정이었지만 현지 팬들의 뜨거운 호응에 콘서트 횟수를 대폭 늘렸다.

이번 투어에는 빅뱅 전국투어로도 방문한 적이 없는 니가타, 에오모리, 홋카이도, 미야기, 카가와, 오카야마, 히로시마, 나가사키, 시가 등이 포함돼 있다.

대성은 "'디스커버'가 따뜻함을 담은 앨범인 만큼 이번 솔로 전국 투어도 팬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빅뱅은 지난해 월드투어 2012 빅뱅 얼라이브 갤럭시 투어를 개최하고 일본에서 총 45만 5000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올해는 개별 활동으로 일본 시장을 공략한다. 대성에 이어 지드래곤은 한국 솔로 가수로는 최초로 일본 4대 돔 투어를 진행한다. 승리는 일본 주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대성은 27일 일본 데뷔 앨범 '디스커버'를 발표했다. 전국투어는 다음달 23일 고베 월드기념홀에서 시작해 6월 18일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막을 내린다.

/박정준기자

U CITY NIGHTCLUB
U
LUXURY 30¡/40
U-CITY NIGHTCLUB
02)542-1035~6

진짜같은 8m 거인 모습 눈못떼는 화려함에 탄성

film review

■잭 더 자이언트 킬러

어린 시절 꿈과 교훈을 주었던 동화를 성인이 되어 영화로 만날 경우 두 가지의 기대를 하게 된다. 오래도록 간직했던 주인공들을 다시 일깨워주고, 어른의 시선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이길 바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화 '잭과 콩나무'와 영국 민화 '잭 더 자이언트 킬러'를 배합하고 아더왕의 전설을 얹은 '잭 더 자이언트 킬러'는 성인 동화로 만족감을 주는 영화다.

이야기는 간단하다. 시골 농장에서 삼촌과 사는 잭이 말을 팔러 갔다가 돈 대신 콩알을 얻어오고, 그 콩이 물에 젖어 하늘로 뻗어나가게 된다. 마침 왕궁을 탈출한 공주가 마법의 콩나무를 타고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거인들의 세상 간투아로 사라진다. 잭과 왕의 호위무사 엘몬트, 야욕에 찬 공주의 약혼자 로데릭이 공주를 찾기 위한 간투아 원정대를 결성하고, 지상과 간투아가 연결되면서 거인들이 인간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내려온다.

3D 카메라로 촬영된 '잭 더 자이언트 킬러'는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8m에 달하는 거인들의 섬세하고 다양한 모습이나 마법의 콩나무가 자라는 모습, 새롭게 창조한 세상인 간투아는 우리의 상상력을 북돋는다.

'유주얼 서스펙트' '엑스맨' 등을 연출한 브라이언 싱어 감독은 조금은 어둡고 음습한 자신의 영화적 색깔을 많이 배제하고,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다. 특히 소년기가 남아있는 잭과 철부지 공주 느낌인 이자벨이 모험을 통해 점차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영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점이 돋보인다. 다만 액션이 기대치보다 약하다는 점은 아쉽다.

영국 출신으로 근래 한국 팬들에게 보낸 친필 편지로 화제를 낳은 니콜라스 홀트가 청년 잭을 맡아 싱그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이자벨 역의 엘리너 톰린슨은 아름다운 외모와 연기력을 지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잭 더 자이언트 킬러'는 어린 시절의 동화를 떠올리며 즐겁게 볼 만한 어드벤처 영화다. 28일 개봉

가장 매혹적인 도둑이 온다

'아르센 루팡' 뮤지컬로 탄생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괴도신사 아르센 루팡이 뮤지컬 무대에서 재탄생했다.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아르센 루팡'은 프랑스 작가 모리스 르블랑이 1905년을 시작으로 34년간 연재한 루팡 시리즈가 원작이다. 정의로운 도둑 루팡의 행적을 화려한 무대와 웅장한 음악으로 재구성, 국내 제작사인 PMC프러덕션이 뮤지컬로 초연해 관심을 모았다.

27일 열린 프레스콜에서 연출자와 배우들은 이 작품을 해외 라이선스가 아닌 창작 뮤지컬로 무대에 올리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관심을 당부했다.

이종석 연출은 "라이선스 뮤지컬과 구분 없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창작 초연이라 공연 중에도 계속 보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준모와 루팡 역을 번갈아 연기하는 김다현은 "솔직히 지금까지도 계속 대본과 가사가 바뀌어서 힘들다. 뮤지컬에서 쪽대본으로 한 건 처음"이라면서도 "이미 공연은 시작됐지만 더 나은 작품이 나오길 바란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창작 뮤지컬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5일까지 공연될 이 작품에는 김다현과 양준모를 비롯해 서범석, 안유진, 베디 해 등이 출연한다.

/박진형기자 rabb827@metroseoul.co.kr

wind8686@naver.com

민간인이 약과 먹으면 곤장 80대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지금은 무심코 먹는 음식이지만 그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담겨있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고 한과이며 제사 때 빠지지 않는 약과가 그렇다.

조선시대에는 한때 약과를 먹으려면 죽을 각오까지 해야 했다. 나라에서 민간인은 함부로 만들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했던 사치 음식이기 때문이다. 지금 들으면 지나가던 강아지도 웃을 이야기지만 어쨌든 법조문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

정조가 법을 재정비하면서 「경국대전」과 「속(續)대전」의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추가할 부분은 보태어 「대전통편」이라는 새로운 법령집을 내놓았다. 여기에 예전에는 없던 "민간인이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유밀과를 사용하면 곤장 80대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유밀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약과다. 물론 약과를 만들거나 먹다가 적발돼 곤장을 맞았다는 기록은 없으니 실제로 집행이 됐던 적은 없는 사문화 조항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약과만큼 자주 제조 금지 조치가 내려진 식품도 드물다.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에서 약과는 대단한 사치품이어서 민간의 사용은 물론 국가 잔치나 제사 때도 사용을 금지한 적이 있다고 했다.

지금은 특별할 것 없는 아이들 간식이고 한과에 불과하지만 옛날 시각으로 보면 약과는 만만한 음식이 아니었다. 밀가루가 쌀보다 귀해서 '진가루'라고 불렀던 시절에 할머니들이 한 방울마저 아까워했던 참기름을 넣어 반죽한 후 벌꿀을 버무려 굳힌 것이 약과다. 이런 약과를 잔칫날마다 관혼상제 때 필요로 했으니 만들어 놓으면 여기저기서 선물로 손을 벌렸다.

때문에 약과 만들다 국가 재정과 개인 살림이 거덜 날 판국이었으니 아예 제조를 금지했던 것이다. /음식문화평론가

날씨

2/28 木 일출시각 07:05 일몰시각 18: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서울 · 청주 · 대전 · 전주 · 광주 · 제주 · 강릉 · 울릉도 · 대구 · 포항 · 울산 · 부산

날씨가 추워지면 피부의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땀샘과 피지샘이 위축돼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보습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천식지수 /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3	8	7			6
					9	7		
	7	5	4			9		
8	6		1		3	5		7
4								2
5		7	2		4		3	8
		6			8	3	2	
		1	7					
2			5	1	6			9

8			4		3			
9	4						2	8
	5			8		6		
	9		8	1				7
		8				3		
4				2	5		8	
		9		5			6	
7	1						5	9
			9		8			1

스도쿠 정답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110.com

고시삼수생 - 군대도 아직 딴생각말고 공부에만 집중

휘어름고라의 남 89년 1월 4일 음력

Q 대학교 1학년 때 휴학하고 현재 고시를 도전하고 있으나 2번 실패했습니다. 아직 군 복무도 마치지 않았고 대학도 1학기만 다녀서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군 복무 이전에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서 계속 도전하려 합니다. 저에게 합격운이 있는지요.

A 인생에는 늘 선택이 있으며 실패 뒤에 환희도 공존합니다. 고시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명을 놓고 세상을 향해 평가를 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언젠간 합격할 것이니 이판사판 공부해야지 틈틈을 놓고 한다면 하늘에서 그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을묘 십자(一字十字)라 학문에 뜻을 두고 학문으로 결과를 이루십시오. 귀하는 정관격이라 아주 바르고 모범생일 것입니다. 매사 긍정적인 사고가 귀하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주리라 확신 하십시오. 수기(水氣)가 많으니 항상 머리가 끓고 속이 타는 인후병에 노출되기 쉬우니 많은 생각은 편리할 성이오. 산행을 무리하게 하여 눈도 나빠지게 되니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공부 많이 하십시오.

혼기 이미 지난 장남 집장만하면 만사OK

mu728127 남자 85년 11월 21일 음력

Q 장남인 저는 아직 결혼도 못 하고 있는데 동생들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도 다 컸습니다. 혹, 독신운이 아니라면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건축 일을 하고 있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요.

A 재성(財星)은 여자를 말하고 재물을 나타내는 것인데 재성이 운에서 뒤를 받지 못해 2014년까지는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 외 장점으로 사주 설명을 해본다면 생일지(生日支)에 축토(丑土) 안에는 신금(辛金)이 있어서 생신(生辛)이 되니 마치 과 같은 환상이라 많은 일에 꼼꼼하고 섬세하므로 신뢰주의 삶으로 책임을 다합니다. 잘 짜여진 철근과 같이 건축 업무가 천직이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은행 거래를 통해 집 장만을 먼저 하십시오. 집을 결산 뒤의 그릇으로 본다면 그릇이 있으면 곧 채워지게 되는 이치로 뒤늦게 인연을 이루어 조태상 관록왕(官祿旺)으로 불려 노후가 안정되고 편안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2월 28일(음 1월 19일) 김혁수 인생상담 02)577-0541

쥐 48년생 마음이 편안하니 좋은 청춘~ 60년생 온 문제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 72년생 공적인 일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84년생 물고기가 큰 강물을 만난 격이다.

소 49년생 과욕하면 원통한 일이 생긴다. 61년생 배우자와 갈등에 심난한 하루~ 73년생 오늘의 실패는 성공의 약이 된다. 85년생 상대가 만만해도 터무니없는 요구는 마라.

호랑이 50년생 사랑의 온기 일치 들도록~ 62년생 동원군이 많아 힘든 일도 술술 풀린다. 74년생 멀리서 좋은 소식이 있으니 기대하라. 86년생 꿈이 꾸하는 이상과 마주 섰는다.

토끼 51년생 가정이 화목하니 걱정은 사라진다. 63년생 독불장군은 미래가 없음을 명심~ 75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87년생 우선대를 잡는 상황은 만들지 마라.

용 52년생 사람 만들으려면 지갑 열어라. 64년생 호랑이가 숨을 나온 격이다. 76년생 급한 걸음일수록 잠시 쉬는 여유 필요~ 88년생 우울한 분위기 쇄신이 약이다.

뱀 53년생 동쪽에 가면 의외의 이득이 생긴다. 65년생 아랫사람 부탁은 꼭 귀담아들어라. 77년생 멀리서 반가운 벗이 찾아온다. 89년생 운세가 열렸으니 꿈을 펼쳐라.

말 42년생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54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66년생 일진이 평로이니 경거망동 삼가라. 78년생 내 뜻을 강조하면 역풍 맞는다.

양 43년생 남의 일로 바빠진다. 55년생 난관이 있어도 약속은 지켜라. 67년생 논란 풀고 계획대로 가는 게 득이 많다. 79년생 변수가 많으니 매사 꼼꼼히 챙겨라.

원숭이 44년생 욕심부려서 걱정거리 만들지 마라. 56년생 등 돌우는 벗이 있어 좋다. 68년생 남을 곤란하게 하면 자신도 곤란해질 것. 80년생 동쪽에 가면 희소식 있다.

닭 45년생 남의 말 그대로 믿으면 낭패 본다. 57년생 필요하면 원수와도 손잡아라. 69년생 삶에 여유가 있어야 행복해진다. 81년생 꿈을 갖고 틈틈 정진 뜻은 이룬다.

개 46년생 지출은 분수에 맞게 할 것. 58년생 상처받은 마음은 아물어진다. 70년생 저울질은 적당한 선에서 끝내야 이득~ 82년생 마음을 흔드는 이성이 나타난다.

돼지 47년생 자녀가 웃음보따리 선물한다. 59년생 우선 살고 본 다음 내일 걱정할 것. 71년생 잘나가는 사람 무작정 따라 하다간 큰코다친다. 83년생 소나기는 일단 피하라.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하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4 What are these? 사물에 대해 말하기(복수)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샘플입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Is it time to begin the conference?
B Yes, it is. 여기 당신의 책들이 있어요.
A These books aren't mine.
B Then 이것들은 누구의 책들이죠?
A 이것들은 제 것이고, 저것들이 당신 거예요.
B Yes. That's right.

정답 Here are your books. / whose books are these? / These are mine, and these are yours.

생생영어팁

▶ They aren't mine. VS. They're not mine.

그것들은 제 것이 아니에요. vs. 그것들은 제 것이 전혀 아니라니까요.

위의 두 문장은 모두 '그것들은 ~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ren't는 be동사 are와 not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런데 They와 are를 합쳐 They're로 줄이고, 뒤에 not을 따로 붙여 They're not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개는 큰 차이 없이 쓰이지만 영어에서 단어를 따로 떼어 말하는 것은 그만큼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They aren't라고 할 때보다 They're not이라고 할 때 not을 더 강조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려는 의도에서 They're not이라고 말하는 거죠.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서는 같은 의미를 여러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두 가지 표현을 함께 익혀 두세요.

is going to arrive soon	곧 도착할 예정이다	is due to arrive shortly
make your way to Gate 3	3번 문으로 가시오	proceed to Gate 3
sales sharply increased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sales dramatically increased
We need to hire more workers	우리는 직원을 더 채용해야 한다	We are short-handed
will go on vacation	휴가를 갈 것이다	will take some time off
will open on schedule	예정대로 열 것이다	will open as scheduled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5. Propose a solution

답변 구성하며 말하기

▶ 문제에 언급하기

However, there is a problem. 그러나 문제가 있으시군요.

음성 메시지의 내용 및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전화하게 된 배경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해준다. 이때 '그러나 문제가 있군요'와 같은 구문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문제를 이어간다. 음성 메시지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증거이 곳곳에 나타나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However, there is a problem because 주어 + 동사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However, there is a problem because a big restaurant will open near your restaurant.
- However, there is a problem with 명사 ~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However, there is a problem with the reservation. 그러나 예약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 상대방의 요구 사항 제시하기

So, you would like for me to check on this matter.

- you would like for me to ~ 제게 ~을 요청하셨죠.
  So you would like for me to help you out on this matter.

미셸 위 한국 국적 포기… 왜?

재미교포 프로골퍼 미셸 위(24·위성미·사진)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자 관보에서 미셸 위가 21일자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했다고 고시했다. 이탈 사유는 '외국 국적 선택'이다.

1989년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셸 위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골프는 물론 외모까지 빼어나 국내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2007년 18세가 된 이후에도 이중국적 상태를 유지했던 그는 여러 번 "한국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없다"고 고국에 대한 자부심을 밝혀왔던 터라 돌연 미국 국적을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재미교포 골퍼 김초롱은 2004년 12월 한·일 여자골프 대항전에 한국팀 대표로 선발돼 우승에 기여했다. 당시 그는 "한국 대표로 출전한 게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이듬해 미국·유럽 대항전인 솔하임컵에 미국 대표로 출전한 그는 미국팀 우승 후 "나는 자랑스러운 미국인"이라고 말해 국내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김민준기자 mjkim@

AFC 수원삼성 '무승부'

인민 루니 정대세 원톱 – 후반 37분에야 첫 슈팅

프로축구 K리그 수원 삼성이 2013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에서 센트럴코스트 마리너스(호주)에 힘겨운 무승부를 거뒀다.

수원은 27일 호주 고스포드의 블루텅 센트럴 코스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지난 시즌 호주리그 챔피언인 센트럴 코스트를 맞아 '거미손 골키퍼' 정성룡이 페널티킥을 포함해 세 차례 '슈퍼 세이브'를 펼치는 활약을 펼쳐 0-0으로 어렵게 비겼다.

1차전에서 승점 1을 따내는 데 그친 수원은 내달 13일 귀저우 런허(중국)를 홈으로 불러들여 2차전을 치른다.

북한 대표팀 출신의 '인민 루니' 정대세는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 나섰지만 후반 37분에 첫 슈팅을 날리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수원은 전반 초반부터 오른쪽 측면이 자주 뚫리면서 센트럴 코스트에게 손쉬운 역습을 허용하며 고전했다.

허리 조율을 맡은 김두현과 오장은의 침투 패스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 정대세는 최전방에서 고립돼 볼조차 잡기 어려웠다. 수비진이 허둥대는 사이 쏟아진 호주의 공세는 국가대표 골키퍼 정성룡의 눈부신 선방으로 넘겼다.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G조 1차전에서도 지난해 대한축구협회(FA)컵 우승팀 포항 스틸러스가 중국의 베이징 궈안과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안방에서 열린 첫 경기에서 승점 1을 따는 데 그친 포항은 다음 달 1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분요드코르와 2차전 원정경기를 앞두고 부담을 안게 됐다.

수원의 정대세가 센트럴코스트 마리너스의 로즈와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추신수 시범경기 첫 타점

신시내티 감독 "최고 1번타자 될 것"

추추 트레인' 추신수(31·신시내티·사진)가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출전 4경기 만에 첫 타점을 올렸다.

추신수는 27일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출전해 2타수 1안타를 치고 타점 1개를 수확했다. 시범경기 타율은 0.250(8타수 2안타)이다.

1회 중견수 뜬공으로 잡혔고, 1-0으로 앞선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중견수 앞으로 굴러가는 안타를 날려 3루 주자를 홈에 불러들였다.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유망주 빌리 해밀턴으로 교체됐다. 신시내티는 5-7로 역전패했다.

한편 이날 미국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올 시즌 추신수는 우리 팀 최고의 1번 타자가 될 것"이라는 더스티 베이커 신시내티 감독의 인터뷰와 함께 추신수의 활약을 기대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김민준기자

인천 입단 이천수 "후배에게 존경받는 선수로"

"후배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선수로 거듭나겠습니다."

돌아온 풍운아' 이천수(32·인천·사진)가 성숙한 선수로 달라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2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 입단식에서 "후배들에게 인정받는 선수가 되겠다"며 "그라운드에 나가서 경기력으로 말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천수는 2009년 전남 코치진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고서 선수단을 무단이탈해 임의탈퇴 조치를 받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전남 구단과 팬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자 최근 전남 구단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의 임의탈퇴 조치를 철회했고, 인천에서 새로 선수 생활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이천수를 문제아로 보는 시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를 의식한 이천수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비난은 줄어지고 나아가야 할 점이다. 시간이 걸릴 때 비판이 환영으로 바뀌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준기자

펠리의 신학기!
신나는 SALE
2.1(금) ▶ 3.10(일)
단독!
최대 ₩10,000할인
94주년 3.1절 기념
국가유공자 할인
전품목 50%
레스모아 특별 혜택
1 신나는 출발
신학기학생 할인 10%
2 10만원이상 구매고객
스포츠색 증정
3 차이니즈 조디악
영화관람권 증정
2족 구매시
4 HTML 가방구매고객
컬러파우치 증정
신학기 퍼레이드
1 신학기 선물은 기프트카드로
GIFT CARD
5만원권/10만원권
/ 펠리 인형 SET
2 신학기 선물은 레스모아에서
포장서비스 무료
온라인 쇼핑몰 EVENT
www.lesmore.com
NAVER
레스모아
EVENT 1
CONVERSE
신학기 SALE
50
EVENT.2
new balance
NB SALE
40
EVENT 3
HTML Feltics
백팩 SALE
20
레스모아 전국 매장 / 레스모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합니다. - www.lesmore.com
Smile Style!
LesMore